

야전복은 말한다, 장군님처럼 조국을 사랑하라

1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이나 전투들에서 무공을 세운 군사령관들의 무훈담과 함께 그들이 차지한 영광찬란한 사령관복에 대한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이 전해오고있다.

색깔과 형태는 제각각이던 군최고사령관복들은 레의없이 엄격한 군사체제와 군복에 의해 움직이는 군대에서 장병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무언의 구령》이었다. 그래서 최고사령관복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위엄 있었다. 으르르하게 금속을 엮기도 하고 금별을 수놓기도 하였으며 번쩍이는 훈장을 달기도 하였다.

그에 비하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생 입으신 야전복은 너무도 수수하고 평범하였다.

특별한 장식도 없고 금별달은 더더욱 없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의 야전복에는 그이께서 헤쳐오신 만고공상이 눈물겹게 비껴있으며 조국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사회주의 과학성과 불패성을 세계앞에 증명할 거대한 인류사적업적이 무겁게 실려있다.

돌이켜보면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에 부닥쳤던 지난 세기 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엄혹했던 나라의 사회주의 수호전은 자주적근위병으로 사느냐, 제국주의의 노예로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사의 항진인 동시에 인류의 이상인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그 승리의 필연성을 세계앞에 중시한 미증유의 인류사적결전이었다.

그날 우리 장군님의 야전복에 스며든것은 조국의 운명을 각일각 위협하는 사나운 력사의 돌풍이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물러르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신 불타는 사명감이 그이의 심장에 뜨겁게

타오르고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흠뻑새도 말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에서 전사들과 함께 생사교락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것이다. ...

다박출소에서 돌아오신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이 엄숙한 선언은 자신의 심장에 배린 전투명령이기도 하였다.

그때부터 우리 인민이 매일같이 비은 장군님의 모습은 당중앙위원회와 집무실이나 중요회의장의 연단이 아니라 위장망을 친 최전방지휘소의 작전대열이나 바락새관 교지에 게시는 최고사령관의 모습이었다.

당시 우리 인민과 동포들속에는 《선군속지법》전설이 널리 전해졌다.

오늘은 철령의 아흔아홉굽이를 에둘고 오성산의 칼바람길을 뚫어 전선본부의 최전초소를 찾았시었다는가 하면 매일은 길길이 뛰는 격랑을 타고넘어 전선서부 심방어대의 병사들과 함께 계시었다는가 하면 소금물에 젖은 야전복을 말릴새도 없이 다 음날 이른새벽에는 적들과 군복자락을 스치며 서리발사신을 주고받는 살기찬 판문점을 찾으며 인민군인들에게 혁명적진영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혁명의 주력군, 사회주의수호의 핵심력량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김정일장군님의 준엄한 조국수호의 길, 그것은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백두의 피어린 행군길의 연속이었다.

그이의 야전복은 그대로 백두산야를 종횡무진하시던 빨치산 김대장의 군복이었고 물이가신 야전차는 항일의 전구를 질풍처럼 달리던 빨치산배이었다.

직접이 코앞인 최전방의 작전대열에서 승리의 화살표를 그으시는 장군님의 기상은 백두산악우에 번쩍 올라서시어 원수를 향해 불호령을 내리시던 백두산 호랑이, 질실의 김대장이시었다.

한당이 꿩기법으로 전사들과 야전식사를 나누시는 우리 장군님

그리움의 대화가 흐른다.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받아 흔들리는 눈가루도 유난히 반짝이는 2월의 이 아침, 흰눈덮인 장군봉에 거연히 서서 백두의 눈바람에 야전복자락을 승리의 기폭처럼 날리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김정일장군님의 기록하신 영상이 승엄히 안겨와 못건디게 그리워지는 인민의 마음이다.

춘추추동 세월의 비바람, 력사의 눈보라에도 끄떡없이 온갖 역풍을 맞받아 사회주의조건을 승리의 모습은 항일의 그 나날 대원들과 한솥의 미시가루를 나누시던 빨치산 김대장의 모습 그대로였고 야전복차림으로 종대병실에 서 병사들의 화선음악회를 보아주시는 그이의 친근한 영상은 우등불 타오르는 밀밭속의 빨치산 오라톡에서 전우들과 박수장단 맞추시던 주석님의 호방한 미소가 떠오르게 하였다.

야전복자락의 펄럭임소리는 그대로 혁명승리의 노래가락으로 울려 퍼졌다.

천만대적이 기세를 부려도 눈길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한 손에 취락떠락하신 강철의 령장, 핵전쟁의 참화를 들춰우려고 발광하는 원수들의 기도를 불꽃처럼 만드는 강위력한 전쟁역량을 마려하는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신 우리 장군님을 우러러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끌어들여 터쳐 올린 경탄과 매혹, 흠모의 목소리를 어찌 일일이 다 전할수 있었는가.

그 시절 세계는 《유일초대국》이라 으시대던 미국이 령도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조선의 손바닥우에서 놀아나는 력사의 만화도 현실로 보았다.

제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내들린 《3.3.3붕괴설》, 《체제붕괴론》이라는 것들이 《연착륙》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동반자론》이 되어 줄을 지어 평양의 문을 두드리는 회한한 광경도 펼쳐졌다.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길은 평양으로 통한다.》는 말이 통설로 되었다.

오늘날 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라선 공화국의 강위력한 힘의

리에도 이끌어 세기의 상상봉, 기적의 명마루우에 올려세우신 민족의 영웅.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그날로부터 강성부흥의 령명을 맞이한 행복의 그날까지 우리 장군님께서는 언제 한번 야전복을 벗으신적 없으시었다.

장군님과 야전복, 때여놓을래야 때여놓을수 없는 이 가슴뜨거운 말과 더불어 한평생 애국애족으로 불태운 그이의 위대한 한생을 돌이켜본다.

2

위대한 장군님의 야전복은 인민사랑의 열화를 내뿜고있다.

늘 야전복차림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애족의 초강대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이의 소박함과 겸박성만을 보지 않는다.

우리 장군님의 야전복, 승엄한 마음으로 그앞에 서면 인민의 아들로 태어나시어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그이의 무한대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 그리고 한없이 고매하신 인민적정모가 뜨겁게 어려온다.

지금도 우리의 귀천에는 자신의 한생을 쥐어짜던 인민이라는 두 글자밖에 나눌것이 없다고, 나 김정일우에 인민이 있고 김정일은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절절한 말씀이 생생히 들려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분초를 아끼고 많이 일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초가 한시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일요일과 평일날은 물론 자신의 생신날마저 헌지지도의 길에 계시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또다시 남으로 쉬임없이 달리신 빨치산식 강행군과 쉼없는 무더위를 뚫고헤치신 삼복철강행군, 강구위속에서 단행하신 눈보라강행군, 조국의 천만년미래를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애국헌신은 눈물없는이 더듬을수 없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영웅적대사사이다.

자신께서 헌신하는것만큼 인민에게 행복이 차례진다는 비상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인민을 위해 걸으신 길은 그 열마이며 뿌리신 만복의 씨앗들은 또 얼마나 무수히 많은가.

그 길에는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하루빨리 풀기 위해 한겨울의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어 우리 인민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며 질풍은 명주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신 이야기도 있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고 또 찾으시고 비날론복행군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이의 소박함과 겸박성만을 보지 않는다.

우리 장군님의 야전복, 승엄한 마음으로 그앞에 서면 인민의 아들로 태어나시어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그이의 무한대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 그리고 한없이 고매하신 인민적정모가 뜨겁게 어려온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그늘속에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비오듯 내리는 속에서 이어가신 2008년 삼복철강행군.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7월과 8월 두달기간 헌지지도하신 단위는 무려 30개 단위가 넘는다. 세상사람들이 피서지와 휴양지를 찾아 붐비고있을 때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멀고 험한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었다.

초인간적인 강행군으로 땀에 젖고 색이 바랜 장군님의 야전복에는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함이라면 자신의 피와 땀을 다 바치고 뜨거운 심장도 서슴없이 내대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뜨거운 피와 혈연의 정이 스며들어있었다.

전야에 무르익는 구수한 낱알 향기도 배어있고 공장의 기계기름냄새, 대홍단의 감자냄새, 대동강과수농장의 과일향기, 아니 온 나라의 행복의 숨결이 다 스며있었다.

장군님의 야전복이 세월의 눈비에 젖어들고 위민헌신의 땀방울로 젖어들 때 이 땅우에는 인

민의 행복이 그만큼 커지고 인민에게 안겨줄 창조물이 더 많이 일떠섰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수한 야전복과 더불어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야전복차림으로 나서시기만 하여도 우리 인민은 그이의 원대한 구상과 단호한 결심을 알았고 펄럭이는 야전복자락을 보며 장군의 배짱과 단력을 배웠으며 환한 미소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낄수 있었다.

하기에 야전복차림의 우리 장군님을 멀리서 보기만 하여도 열광의 환호를 저절로 터쳐올리고 그이께서 앞장서 가시는 길을 스스로림없이 따라나선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었다.

정녕 세계의 정상에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의 준엄과 영광, 민족의 통상과 번영은 장군님의 소박한 야전복과 때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오늘 온 나라 방방곡곡에는 야전복차림의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들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언제나 수수한 야전복차림으로 인민을 찾고 또 찾으시던 우리 장군님의 영상을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새겨주시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야전복자락을 날리시며 인민의 앞날과 조국의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도록 하여주시었다.

위대한 혁명영도의 길에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똑같은 조국애와 애국헌신의 의지가 어떤 장군님의 그 야전복을 심장에 안으시고 겸손한 령길과 하늘길, 바다길을 오늘도 이어가고계신다.

그렇다. 야전복의 력사는 오늘도 계속된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승리의 기폭,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상징과도 같은 장군님의 야전복.

야전복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장군님처럼 조국을 사랑하라!

또다시 울려 퍼진 인민사랑의 발파소리



《파-팡, 파프롱!》

지난 12일 평양시의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장엄한 발파축음이 2월의 봄바람에 울려 퍼졌다.

불과 한해전 송신, 송화지구에서 울리었던 발파소리가 오늘은 또다시 화성지구에서 울려 퍼져 이 전역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뜨거운 격정으로 뒤흔들고있다.

잡자던 겨울을 깨우는 봄의 화성이런가 오랜 세월 한적하던 땅우에 인민사랑의 불피성을 울려주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천지개벽된

화성지구의 새집들에 우리 부모형제, 자식들이 들어설 기쁨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아가자고 호소하시었다.

천지개벽된 화성지구의 새집들에 우리 부모형제, 자식들이 들어설 기쁨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이 나라의 남나로소가 현대적인 새집에서 부림없이 살라고 또다시 천지개벽의 휘황한 설개도를 펼쳐주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다가오는 태양전에 펼쳐질 송신, 송화지구의 새집들이경사를 눈앞에 그려보며 사람들이 기쁨과 환희속에 설레이고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주시는 사랑이 부

족하싯든 이렇게 또다시 새로운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장쾌한 발파소리를 울리도록 해주신것이다.

지금의 대건설전투는 보통때와는 다른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역경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실할수 없는것이다.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사태와 때없이 들이닥치는 자연재해는 수시로 사람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생활에도 각종 악영향을 미쳐 행성의 도처에서는 한숨소리만이 높아가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인민사랑의 배아리, 부흥번영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그 벽간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선경지리,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창전지리, 은하과학지리, 미

에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울수 있고 하늘의 별도 많수 있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하시느 뜨거운 사랑과 헌신은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며 설한공속에서 향기그득한 꽃을 피우는 기적과 전변의 회소식을 안아오고있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지난 10년간 사랑하시는 인민을 위해 창조와 건설의 대변영기를 펼쳐주시었다.

그 벽간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선경지리,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창전지리, 은하과학지리, 미

송고한 후대사랑과 뜨거운 동포애의 발현

공화국의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을 때에 평양에서 진행된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1(2022)년 국가 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된것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 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기가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강화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국가적부담으로 어린이들을 키우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중요한 정책으로 수립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해 내는 문제가 중요시적으로 다뤄지며 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육아법이 채택되게 된것은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더 정성을 쏟아부어주고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육아법에는 어린이들을 나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해외동포권익보호법은 동포들의 민주주의적권리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조국의 통일과 통상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하고있다. 해외동포권익보호법이 국가가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동포들에 대한 장려 및 우대, 특혜 조치들을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것이 이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돌이켜보면 해외동포들을 한식솔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해외동포들을 대대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한 품에 안아주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었다.

이번에 채택된 해외동포권익보호법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송고한 뜻을 이어 해외동포들을 뜻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외동포중시사상과 정책이 그대로 구현되어있다.

해외동포권익법이 새로 채택됨으로써 해외동포들의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더욱 높여주는것을 비롯하여 해외동포들과의 사업을 보다 폭넓고 활력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는 위대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지금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한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결정들과 법령들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면서 부흥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주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펼쳐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리 설